

보다 더 첨단화된 인간생활에 유용한 연구를...



김 태 영 사장

“

쟁이의 기질로서 성취욕이
충만해 있습니다. 국가적
으로 보아도 기술개발이라
는 것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출
중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연구소 설립 배경은?

저희 연구소는 '79년 5월 발족을 보았는데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주문형태의 제품개발에 주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다 국가적인 시책, 사회적인 제도자체가 외형적인 면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시 대기업연구소가 12인 이상 돼야 인정했던 연구소 설립요건이 5인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중소

기업 연구 활성화가 일기 시작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쟁이의 기질로서 30년동안 전자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취욕, 보람, 이러한 의욕에서 남이 안하는 연구 남이 하다가 실패한 연구, 기술적인 노하우가 우리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기업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가져오면 해결을 해주는 식의 좋은제품, 기술, 경쟁이 심한것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연구소의 연구개발 실적은?

국책과제라든가 공업기반기술과제들을 매년 개발하고 있는데 공항관리 레이더시스템, 컴퓨터인터페이스, S/W 개발 이런것들이 김해공항에 설치 되었고 레이더관제용 S/W, H/W 개발이 공업기반기술로 연구개발하여 7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관리, 공항정보 자동송출장치가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음성을 합성시키고 그 합성음을 오디오를 장착 VHF, UHF 송산기를 통해서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자동송출하는 장치를 곧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될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아직 없는 장비이거든요. 이런것은 사용자가 제안한 Spec에 따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교부에서 학교교육용 컴퓨터로서 S/W사용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CIA프로그램을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로 8편, 2차로 10편, 3차로 8편, 금년에 모두 20편의 S/W 패키지 개념인 CIA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 S/W 교육용 CIA, 산업용부문은 자동화설비, H/W 부문은 Computer와 다른기기와의 인터페이스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인력수급에 대한 견해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람문제라고 봅니다. 돈이야 빌리면 되지만 인력은 빌릴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사내훈련을 통해서 숙련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학술만 가지고 되는데 아니고 어떤 개념파악이라든가 그 비존에 대해 레이아웃, 설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선별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막혔을때 우리의 기술 노하우로 풀어 나가는 관록같은 테크닉이 필요합

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1~2년 이렇게 마스터 하면 이직 하는 일이 많다는거죠 이러한 일은 저 나름대로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연결시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비교적 인력이나 기술에로 사항은 타 기업보다는 덜합니다.

연구소 운영 방침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쟁이의 기질로서 성취욕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아도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고 내가 기술자를 양성해서 이 기술자가 다른데 가서 성장하더라도 결국은 국내에 있는 것이죠

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다거나 그것을 재판하는 형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Personal Computer 제품에 대해서 무언가 특징을 새롭게 해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기능상 더 돋보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재연구 재연구를 하지요. 때문에 우리의 주종품이 Personal Computer인데 지금도 AT 386을 만들고 있지만 AT경우 클럭스피드가 31메가라는 초고속 컴퓨터입니다. AT급에서 이러한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연구소의 장점이지요. 또하나의 Computer 나오는 소음이 심한데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해서 소정온도가 가열되면 팬이 가동 되어서 소음을 없애주는 연구, 또 여기에 상용하는 기능을 Update해서 보다 기능을 보강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래에는 말하는 컴퓨터로 컴퓨터에 보이스 장치를 내장해서 영어에 대한 발음도 정확히 들어보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도 하는 기능을 내장 8월부터 출고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다른기업에서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필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을 찌르는 사업이었어요. 이러한 보람때문에 자꾸 만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자랑은?

중소기업연구소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컴퓨터가 IBM에 대한 로열티지분문제, 즉 외국제품을 데드카피하는 형태에서 탈피하는 뜻으로 내가 제안해서 컴퓨터연구조합을 창설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조합의 종합연구과제로 16Bit PC를 최초로 개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16Bit PC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개발한 것이 많은데 특수분야에서 대중에게 공감대가 안됐지요. 자랑하고 싶은것은 항공기의 시간대별 항적과 관제사항을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해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첨단전파탐지기인 레이더정보자동녹화장치(CDRS)가 국내 최초로 김포공항에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CDRS는 관제구역에 있는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구역에 있는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통신할때 음성과 그때 그때 항공기의 위치만 나타내던 종래의 레이더와는 달리 모든 행적과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화상인 레이더스크프에 나타내 주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 대전 거리와 맞먹은 반경 112Km내의 모든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며 레이더 신호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자료를 1개월이상 보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통시장개방과 대응방안은?

우리와 관련되는 분야는 정보산업분야 중에서도 Computer, S/W 인데 S/W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또 H/W는 가전산업과는 Computer의 특색이 있고 중소기업제품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낮은 Cost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볼때 Computer에 대한 이미지를 브랜드 위주로 보는 관점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산제품들이 고유한 한글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응하는 여러개의 기능을 변형시킬수 있으면 이러한 기능들은 국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외국 수입제품들이 부분적으로는 기능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컴퓨터문화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것의 기능을 보장만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Video, TV 등은 매체 자체가 외부적인 것이니까 어떤것이든지 그 룰에 맞추면 되지만 컴퓨터는 자기가 사용하거나 개선해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부문만은 수입자유화가 되더라도 경쟁력으로 볼때 다른제품보다는 덜 할것으로 봐요 가격면에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제품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속도의 개선, 기능의 개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Computer분야는 많은 기업의 참여와 또 많은 젊은 세대의 배출로 인해서 자금의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비중을 줄이고 항공레이더시스템분야에 주력해서 PC 메이커들과 경쟁을 탈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상공부 공업기반기술 사업승인을 받은 항공용레이더시스템을 개발 성공시켰고 이러한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설비라든가 컴퓨터를 응용한 보다 더 첨단화된 인간 생활에 유용한 산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시 엔젤

이 영화는 록큰롤스타 엔젤이라는 20세 처녀가 무대뒤에서의 공허와 자유에 대한 갈증을 견디지 못해 진실한 사랑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그린 한쪽의 그림같은 사랑이야기이다. 명예와 부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스스로를 구속의 사슬에 묶어버린 현대인은 누구나 한번쯤은 절대적 자유를 통해 모더니즘적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록큰롤에서 파생된 펑크음악과 발라드풍의 소울로 관능적이고 대담한 모험의 세계로 유인하는 마력을 지닌 프린스와 뮤직비디오, 광란적 스테이지 매너를 통해 화제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돈나의 경우도 현대인의 잠재의식을 성적환상과 모험의 세계로 표출시켜내고 있는 케이스이다. 이들의 음악세계는 공통적으로 기존의 질서에 대한 극렬한 거부와 파괴의 상징체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파괴와 거부의 개념은 전통과 형식에 얽매었던 과거의 유산이나 현재의 무미건조한 삶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알. 페스타의 “짚시엔젤”은 이러한 록큰롤의 음악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엔젤과

짚시보이와의 사랑을 묘사한 한 편의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화이다. 스토리 구조는 사랑과 갈등, 배신, 재결합 등의 통속적 멜로물의 형식을 취하지만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록큰롤영상의 주제는 사랑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얻어지는 자유이다. 특히 겁투른 이비자섬에서의 영상언어는 관능적 차원을 넘어서 알. 페스타의 연출의도가 돋보이며 스크린을 압도한다. 영화전편에 넘치는 다이나믹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영상의 조화를 이룬

“짚시엔젤”은 챗바퀴같은 삶에 익숙해져버린 현대인에게 한 모금의 청량제 같은 영화이다.

팝계의 대스타 엔젤

그러나 화려한 생활과 무대뒤에는 공허로움과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언제나 마음에 외로움을 느낀다. 엔젤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젊은이의 우상으로 군림하지만 아직 진정한 사랑은 얻지 못하였다.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이 끝나자 그녀는 공백기간을 갖길 원하지만 그녀를 스타로 키워준 레코드회사의 클린사장은 2~3배의 개런티를 올리며 그녀와의

재계약을 요구한다.

결국 엔젤은 사랑의 섬으로 유명한 “이비자” 섬에서의 비디오 촬영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원주민인 검은 피부의 짚시보이 프란시스코를 만난 엔젤은 그의 완벽한 자유와 야성에 매료되어 낮에는 비디오 촬영을 밤에는 정열적인 사랑을 불태운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속에는 커다란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소속 레코드 회사가 비밀리에 녹화한 엔젤과 프란시스코의 정사장면을 유선방송 및 도하 일간지에 폭로하여 수백만 톤에이저의 우상은 줄지에 “포르노스타”로 전락하게 된다.

좌절한 엔젤은 자살을 기도하고 사건의 전모를 안 프란시스코는 카메라가 장치되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 이 사건으로 엔젤은 연예계에서 매장을 당하고 프란시스코에 대한 배신감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주)동아수출공사 제공>>

레닌그라드에서 피다

‘레닌그라드에 피다’는 소련 전 지역 66개 극장에서 1,636회의 공연기록을 남겼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은 아름답고 산뜻한 작품이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얼마전 소련의 급작스런 정변이후, 소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가까워졌다. 앞으로 정치·경제 뿐만아니라 문화예술에 있어 보다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어지는 이즈음에 충돌소극장에서 장기간 공연될 이 작품은 소련문화의 정서와 사상을 충분히 보여줄 것인데 줄거리를 보면 제1막에서 마라가 한 달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이집에는 귀여운 불청객 리카가 들어와 기거하고 있다. 17세의 소녀인 그녀는 공습에 유모도 죽고, 집도 불타 여기에 찾아드는 것이다. 리카는 의무병으로 참전한 어머니가 가끔 보내주는 식량과 쥐꼬리만한 전 시배급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마라와 리카는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나, 금방 친해져 이집에서 함께 기거하게 된다. 얼마후 리카의 생일날 그들은 초라한 생일파티를 하며,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낀다. 그때 역시 한명의 젊은이 레오니딕이 굶주림에 지쳐 여기를 찾아든다. 며칠이 지나 건강을 찾은 레오니딕에게서 그가 지금 고아이며, 어떻게 해서 부모를 잃게 되었는지를 들은 마라와 리카는 그와 함께

지내기로 한다.

제2막은 1막에서 4년뒤, 전쟁이 끝났다. 마라와 레오니딕은 참전해서 이 도시를 떠났고, 리카만이 그집에 살고 있다. 리카는 지금 의과대학 2학년이다. 어느날 레오니딕이 찾아온다. 그는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었다. 그리고 곧이어 마라도 돌아온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레오니딕은 어느정도 낭만주의자이며, 마라는 조국과 사상을 생각하는 사회주의자, 영웅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라는, 그러한 관념과 그의 가슴을 흐르는 삶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마라와 레오니딕은 다같이 리카를 사랑한다. 리카는 마라를 사랑하고 있다. 마라는 자신이 리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일은—솔직히 말해서—영웅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진지하게 사랑을 토로하는 레오니딕이 리카결에 남고 마라

는 다시 떠나게 된다.

제3막은 1막에서 17년, 2막에서 14년이 흘렀다. 리카와 레오니딕은 결혼해서 이집에서 살고 있다. 레오니딕은 시인으로서 어느정도 성공해 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다.

어느날 마라가 찾아온다. 마라는 많은 인생경험을 하였고, 영중주의와 사상은 퇴색하였으며, 인간으로서의 위안과 안주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는 리카에게 이제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다. 고백을 들은 리카와 레오니딕은 큰 충격을 받는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31일, 마라는 레오니딕의 초대를 받는다. 레오니딕은 리카와 마라에게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떠나겠다고 한다. 결국 둘만 남은 마라와 리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지만,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한다.

〈공연 : 극단반도 (764-8567),
충돌소극장 (743-7778)
'91. 11. 10일까지〉

